예비 아버지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Early Stages of Preparation for Fatherhood

황정해(Jung-hae Hwang)[1]
백경임(Kyung-im Baik)[2]

ABSTRACT

Based on ethnographic methods, the present research utilized individual interviews of 1 to 2 hours each with various probe questions to discover early stages of preparation for fatherhood. Interviews of the 12 male participants took place in naturalistic settings. Most were between 28 to 32 years of age and middle SES class. Results showed that during their wife's pregnancy expectant fathers come to terms with becoming a father; they obtain a new understanding of life and make efforts to behave desirably in society; attitudes towards their own parents change; they have a different relationship with their wife; relations with close associates change; and occupational identity changes in that feelings of responsibility for a wife and child becomes more sincere.

Key Words : 예비아버지 (expectant father), 아버지의 준비기 (preparatory period for fatherhood), 부성경험 (paternal experience).

Ⅰ. 서 론

아버지는 가족형성의 주체적인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가족, 아동, 인간발달의 연구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가족형태가 점차 핵가족, 소가족화 됨에 따라,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변화되면서 학계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우리나라의 아버지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 흐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처음의 관점은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이 자녀에게 중

[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강사
[2]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ung-Im Bai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Ju Campus, Dongguk University, Kyung-Ju city 780-714, Korea E-mail : pgy@dongguk.ac.kr

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인식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아동의 전 발달 영역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머니와는 어떤 다른 영향을 주는 존재인가? 라는 문제를 규명해 봄으로써 자녀에게 어머니 못지 않게 아버지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위영희, 1978 ; 정영숙·이희자, 1980 ; 김옥엽, 1982).

두 번째 관점은 아버지 역할의 실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성은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자녀양육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였다(김미란, 1985 ; 허선자, 1992 ; 황정해, 1993 ; 김주희, 1997 ; 김희주, 1997).

이러한 두 흐름의 공통점은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자녀와 여성의 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성에 대한 이해의 시각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다음의 연구자들에 의해 1990년대 중반부터 남성이 아버지로서 느끼는 만족감과 스트레스 등 그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관점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세 번째 흐름이다(김희숙, 1996 ; 강남미, 1996 ; 김기현, 1998 ; 조선화, 1998 ; 서혜영, 1999).

그러나 이 세 번째 흐름에서는 연구의 대부분이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아버지로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경향성만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 그들이 아버지로서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나 태도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버지가 됨으로써 남성이 겪게 되는 변화를 인터뷰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부성의 의미를 질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부모도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 발달하는 존재이므로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부성을 경험하며 성장 발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됨의 경험의 내용을 살펴 각 단계별로 부성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성경험의 전과정을 하나의 논문으로 다루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부성의 출발점인 임신기 아내를 둔 남성의 아버지로서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심리학자인 엘렌 갈린스크(Ellen Galinsk)의 저서인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란 문헌에서도 남성들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임신기부터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나간다고 하였다. 아내의 임신기부터 부모가 되기 위한 경험을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 그 경험과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직접 임신을 경험하며 모성을 느낄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온 반면, 남성은 자신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성으로서의 연구대상에서 등한시되어온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태아기 자녀를 둔 예비 아버지들의 부성경험의 내용을 몇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들 특성이 내포하는 부성의 의미를 파악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비 아버지들의 부성경험에 대한 의미파악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부모로서 중요한 주체인 남성 자신에게 부여되는 아버지로서의 의미파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자녀 태아

기의 부성의 의미 파악은 예비 아버지 연구에 대한 학문적인 자료 제공 뿐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탐사질문이 가능한 인터뷰법을 이용하여 태아기 자녀를 둔 예비 아버지의 부성경험의 내용을 탐색하였다. 응답자는 첫 자녀가 태아기인 경우의 예비 아버지들이었다.

응답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경로는 기체조 단체, 친구, 친척, 이웃의 소개, 놀이공원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아버지들과 그들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서울, 경기도(과천, 평촌), 경남(마산, 창원), 경북(경주)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이었다. 조사시기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이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의 관점, 상식, 주관적 경험과 의미 등 연구대상의 경험세계와 의미세계를 중시하고 과학적 일반화 보다는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문화기술적 연구법(이희봉, 1988)에 근거를 두었다. 면접과정과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와 인사나 일상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 날씨나 '임신하셔서 기쁘시겠습니다' 등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주고받은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life history)를 나누었다. 그 다음으로 아내가 임신한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내의 임신 이후 자신의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개인적인 심리적 변화, 직업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으로는 아버지라는 느낌이 있는가? 어떤 기분인가? 아버지로서 임신한 아내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와의 만남은 공원, 찻집, 응답자의 집, 직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와의 인터뷰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응답자는 모두 12명으로 그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징은 다음<표 1>과 같다. 연령분포는 28세에

〈표 1〉 태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사례	아버지 직업	학력	자녀	아내 직업
1	29세, 회사원	대졸	임신 8개월	전업주부
2	30세, 회사원	대졸	임신 9개월	전업주부
3	41세, 학원 원장	대졸	임신 8개월	함께 학원운영
4	32세, 회사원	대졸	임신 8개월	회사원
5	37세, 교사	대졸	임신 7개월	전업주부
6	32세, 회사원	대졸	임신 9개월	회사원
7	28세, 회사원	대졸	임신 4개월	전업주부
8	31세, 회사원	대졸	임신 7개월	전업주부
9	30세, 교사	대졸	임신 4개월	전업주부
10	28세, 회사원	대졸	임신 5개월	회사원
11	32세, 경찰	대졸	임신 7개월	전업주부
12	30세, 회사원	대졸	임신 6개월	전업주부

서 32세까지가 10명이며 37세 1명, 41세가 1명이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8명, 교사가 2명, 공무원 1명, 개인업 1명이었다. 아내의 경우 현재 직업유무만을 알아보았는데 전업주부가 8명이며 취업한 경우는 4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학력은 모두 대졸이며 이점은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고려를 요하는 점이 된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로서 인식해 가는 과정

첫째, 아내가 임신한 것을 처음 알게 된 남성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그 가운데 일차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예비 아버지들이 많았다.

"내 핏줄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참 좋아요 ."(31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처음엔 마냥 기뻤습니다. 날아가고 싶었죠. 너무 좋아서 춤까지 덩실거렸으니깐요." (30세, 임신 9개월 아버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아이가 생겨서 좀 놀래기도 하구...아무튼 기쁩니다. " (30세, 임신 4개월 아버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의 임신이 마냥 좋았어요 ." (37세, 임신 7개월 아버지)

또 일부 예비 아버지들은 처음엔 실감을 못하다가 점차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처음 임신소식을 들었을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부모님 생각이 나고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32세, 임신 9개월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실감이 나더군. 내 핏줄이 생긴다는 게 참 의지도 되고 또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니깐 그냥 덩달아 즐겁더라구. 세상에 사람들이 왜 자식 자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32세, 임신 8개월 아버지)

또 일부 아버지들은 기쁨 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따르는 부담 및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키워오시면서 하셨던 역할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요...."(28세, 임신 5개월 아버지)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생겨서 무척이나 기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처음엔 많이 두렵더군요. 내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적잖이 부담이 되면서 이런 저런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41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처음에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부담을 먼저 느꼈어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요.. 그냥 당황했어요."(28세, 임신 4개월 아버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하니깐 책임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고 .. 잘 키워야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요...."(29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아무래도 부담감, 책임감 등이 많이 느껴진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32세, 임신 8개월 아버지)

"뭐랄까.. 든든함인 것 같아요.. 이젠 둘이 아니라 셋이라는 마음..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결실을 맺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경

제적인 면과 태어날 아이의 교육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구요."(32세, 임신 말기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볼 때 남성은 아내의 임신소식을 접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은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접하고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임신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움을 표현하고 과연 자신이 부모가 될 수 있을까 ? 하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그려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핏줄이 생기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며, 특히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기뻐해 줌으로써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손인아(1983)의 연구에서 아내의 임신에 대한 남편의 느낌 반응이 기쁨이나 기쁘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안한 느낌을 보인다는 것과 일치하는 점이다. 또한 아내의 임신으로 남성은 혈연의 연속성에 대한 뿌듯함을 경험한다. 이런 과정은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림으로써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며 돌아가신 분에게는 살아계실 때 손자를 보여드리지 못함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었다.

둘째, 남성이 예비 아버지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은 태동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은 자신의 몸으로 직접 임신을 경험함으로써 아이의 존재를 임신초기부터 느끼지만 남성은 여성과 달리 간접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에게 아이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태동은 아버지로서의 정체감을 강하게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남성이 실제로 임신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태동을 통해서 부모가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음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태동 .. 허 그게 참 사람을 우습게 만들데.. 이제 겨우 몸 속에 형체가 만들어졌을 애가 뭐 발길질이라도 제대로 하겠냐만은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 것도 같고 ..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것 같기도 하고 .. '아빠' 하고 부르는 것도 같고 .. 뱃속에 아이가 숨쉬고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소중한 생명체란 걸 느꼈지..."(41세, 임신 8개월 아버지)

"태동을 느끼기 전에는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태동을 느낀 후에는 새 생명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무엇이든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32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솔직히 처음엔 힘들게 애를 가져서 그런지 실감이 잘 나지 않더군. '이제 아버지가 되었구나'하는 것도 느끼지 못했고 특별한 기분 변화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뱃속에 아이도 초음파로 보고 태동도 느껴지고 해서... '이젠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됐다'는 생각도 들고 .. 책임감도 생기고.. 아내 배가 불러오니깐 이게 꿈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뿐이지..."
(41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아빠라는 느낌은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죠. 뱃속의 아기가 크면서 제 이야기랑 노래를 들으면 발버둥을 쳐요. 그럴 때 마다 '정말 이제는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37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셋째,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다니고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게 됨으로써 태아기 아버지에

게 아내의 임신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은 실제 임신을 통해서 몸으로 생명을 느끼지만, 남성도 아내의 임신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명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음파를 통해 아이를 봤는데 모습이 보이니깐 신기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알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초음파로 봤을 때 신기했다. 이번이 세 번째 산부인과 방문인데 처음에 같이 왔을 때 부끄러워서 진찰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들어가서 초음파 사진을 봤다. 지금은 초음파 보는데 관심이 많다. 신기하죠."(28세, 임신 5개월 아버지)

이상과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예비 아버지들은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본적으로는 기쁨을 느끼는 남성들이 많고 기쁨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손인아(1983)의 연구결과인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느낌으로 부양자로 책임을 느낀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 아내의 임신이라는 상황에서 스스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점차 아버지가 됨을 인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자녀의 태동을 체험하거나 태아를 초음파로 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었다. 그러한 반응들은 예비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가는 과정이라고 파악된다.

2. 예비아버지들의 태교 동참 행동

예비아버지들은 아내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하여 아버지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동의 변화들을 경험한다.

"사실 마음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애랑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잘 안되더라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아이가 입을 옷하고 장난감을 준비해 주는 게 전부지."(30세, 임신 9개월 아버지)

"제 노래를 듣고 발버둥을 치는 아기한테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37세, 임신 7개월 아버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노래도 불러주고, '아가야 아빠왔다'고 인사하는 것으로 아이와 가까이 느끼려고 노력하죠." (29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아내가 언니들로부터 많이 물려받아서 출산 준비물은 많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8개월이 되었을 때 같이 백화점에 가서 모든게 조그마한 것들을 사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쓸 물건이라 생각하니 뭐든지 좋은 것으로 사고 싶었고 빨리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도 하죠" (32세, 임신말기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애기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배를 만져준다든지 음악을 틀어주지요.."(30세, 임신 6개월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볼 때 예비 아버지들은 태아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태아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아내의 배 위에 손을 올려 이야기도 전해주는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를 위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느끼고 아버지됨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태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스스로의 행동도 절제된 행동으로 변화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조금 적게 마시게 되었고 귀가시간은 가능한 빨리 하려하였으며 가끔은 모임에 빠지기도 하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게 되죠"(28세, 임신 5개월 아버지)

"우선 술 담배를 줄여서 끊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담배는 임신 여성에게 뿐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에도 안 좋고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했을 때 끊어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의 건강 뿐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도 할애하고 공부도 하게 되었다."(31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아무래도 행동에 많은 조심을 하게 됩니다. 애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나도 애 아버지인데.. 이런 것을 해도 돼나 ? 하는 생각도 들고.. "(32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일단은 제 몸이 튼튼해야 가족들을 돌볼 수 있으니깐 술자리도 피하고 담배도 많이 줄이고..."(41세, 임신 8개월 아버지)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잘 못 살았다는 것은 아니고... 이젠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니깐 아무래도 돈도 더 많이 벌어야겠고.. 무엇보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공부도 좀 해야겠고 그렇게 되더군.. 무의미한 삶에 의미가 생겼다고 하면 이해가 될지요?"(37세, 임신 7개월 아버지)

"개인적으로 술과 친구를 좋아하지만 아이가 태어난다는 기대 때문에 조금은 멀리하고 있다." (37세, 임신 7개월 아버지)

"결혼 전에는 자유분방하니깐 놀러도 자주 가고 했는데 결혼 후 자제하고 임신 후는 더 자제하게 되더라구요. 그러니깐 결혼 후 친구들이 빼고 그런다고 뭐라 그랬는데 .. 임신 후부터는 주위에서 잘 이해해주고 있어요." (28세, 임신 5개월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볼 때 아내의 임신기 동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남성도 아내가 임신을 하면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하며 술과 담배를 줄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절제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준비해가는 행동의 변화로 보인다. 또한 아내가 임신을 함으로써 남성은 새로 태어날 아이와 더불어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그동안 무의미했던 삶에 의미를 찾아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태교에 대한 부친의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백경임, 1985)에서 임신기 아버지들이 아내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는 등 간접적 영향의 태교활동을 한다는 결과와도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태아를 위한 태교가 모성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3.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인식 변화

예비 아버지들은 스스로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지각하면서 자신의 부모님특히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참 우리 부모님이 많이 기뻐하지. 내가 늦게 그리고 힘들게 자식을 보니깐 다른 부모들 보다 몇 갑절은 더 기뻐하시더군. '이게 효도다 싶고 .. 효도하는 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41세, 임신 8개월 아버지)

"먼저 저의 부모님들에 대한 경외심이죠.. '아.. 그분들도 나를 가졌을 때 이렇게 기뻐하셨을텐데.. 제가 좀 더 잘 해 드려야 하는 건데'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죠.. 물론 아직은 두 분의 마음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썽도 피우고 여러가지 사건도 생기면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분들도 이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31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주 선량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당하고 그러셨는데.. 어렸을때는 아버지랑 성격도 안 맞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애기 아빠가 되니깐 아버지가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구요. 어른이 되니깐 아버지를 이해하고 정도 많이 깊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32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항상 긍정적이셔서 그런 면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은 인자하시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처럼 키우진 않을 거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고 저도 아버지처럼 제 자식을 키울 거예요."(32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남성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고 과거와 현재에 처해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평가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것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아버지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성의 반응은 여성의 경우와 비교된다. 여성은 자신의 몸으로 임신을 경험함으로써 어머니가 되어가는 자신을 느껴 볼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여성의 경우는 출산을 겪으면서 친정 어머니를 떠올리며, 울컥하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노영주, 1998; 손승아, 2000) 남성의 경우는 아내의 임신을 통해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고 감사함을 느끼는데 특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은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아내와의 관계 변화

많은 예비 아버지들은 아내의 임신기 동안 스스로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내용들은 첫째, 아내에 대한 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아내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되요.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는 편이지요."(32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아내에게 초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고 어른들의 경험담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였다."(32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아내에게 더 세심한 배려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29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저 사람이 족발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밤에 족발을 사러 가고 그랬어요. 홀몸도 아닌데 제가 그 정도는 해야죠."(31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아내에게는 짜증도 안내고 뭐든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배도 많이 만져주고.. 힘든 일은 도와주고 싶어요..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을 사다주면서 처음에는 의미도 모르고 했는데 임신 개월 수가 늘어가면서 '아내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먹고 싶은 것을) 구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41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고 여러 면에서 배려를 하게 되었죠."(41세, 임신 8개월 아버지)

"내 아이를 낳아줄 몸이라고 생각하니 임신하기 전보다 더 애착심이 생겨요.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눈이 한 번 더 가고 내가 해줄 일이 없는지 찾게 되었죠."(32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볼 때 남성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늦은 밤에도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오고 집안 일도 열심히 도와주는 등 구체적으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예비 아버지들은 아내가 임신을 하였을 때 아내를 위해 여러 가지 도울 뿐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아내가 임신을 하니깐 내 아내가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30세, 임신 9개월 아버지)

"임신하기 전에는 여자로서 사랑을 했다면 지금은 한 여자로서 뿐 아니라 내 아이를 낳아줄 어머니로서의 면을 더 사랑하지요."(32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신혼초에도 친했었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 더욱 친밀해진 것 같아요."(32세 임신말기 아버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라 조금 조심스럽고 어떻게 생겼고 누굴 닮았는지 기대감에 잠겨 있고 서로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더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30세, 임신 6개월 아버지)

"전보다 대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아이 이름은 어떻게 부를 것인가? 애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등..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잘해 줘야겠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존재인지 느꼈어요."(31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볼 때 아내가 임신을 하면 남성은 아내를 여자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어머니란 이미지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아내에게 더욱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배려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남성은 임신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간의 유대감을 강하게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부부간의 결속감이 강해진다.

5.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한 남성의 아내가 임신을 하면 그 남성 자신의 의식도 바뀌지만 주위에서도 예비 아버지로 그를 인지하여 그들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

"다른 아이의 부모님들을 보면 남 같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배가 부른 어머니들을 보거나 어린 아이와 같이 걸어가는 아버지들을 보면 친근감이 들지요.. 그래서 항상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이와 얘기도 나누고 그 부모님들과도 얘기를 나누게 되죠.. 다 제 선배님들 같은 느낌이예요...."(29세, 임신 8개월 아버지)

"미혼 친구들과는 뭔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느껴졌고 친구들이 나를 '너는 결혼하였

으니깐 예외'라고 대하는 인상을 받아요."(30세, 임신 9개월 아버지)

"부모님이 나를 이제는 진짜 어른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많이 안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친구들이 참 어려 보여요."(31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아내가 임신을 한 후부터는 가족들이 정말 어른이라는 대접을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만나면 술자리인데.. 왠지 마시는 게 꺼려져요."(30세, 임신 6개월 아버지)

"그다지 변한 것은 없어요. 이미 애가 있는 친구도 있어서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았고.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해 주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술자리도 피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하고 돈도 예전처럼 많이 못쓰게 되다보니 친구들이 섭섭해 하는 면이 좀 있었어요.."(32세, 임신 말기 아버지)

"친구들도 안부를 묻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더라구요. 친척들도 자주 연락을 하시고.."(32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임신 전에는 주위사람 특히 어른들보다는 부부위주로 생활했는데 임신 사실을 확인 후에는 주위 사람들을 찾아 뵙는 횟수가 늘었고 부부동반으로 자주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30세, 임신 4개월 아버지)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히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임신한 후에는 이젠 진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어른이 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이 많이 커졌고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29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볼 때 남성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동안 관심영역이 아니었던 타인이나 친구, 가족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도 성인이 된 것으로 느끼고 주변에서도 어른대접을 해 주어 본격적인 성인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끼게 된다. 반면 같은 아버지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커지지만 미혼시절의 친구들과는 다소 멀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남성도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자신의 생활의 축이 가정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 직업인으로서의 정체감 변화

남성이 예비 아버지가 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직장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져야 할 식구가 느니깐 요즘은 일에 더 애착심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31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임신하기 전에는 이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딴 직장으로 옮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후에는 이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32세, 임신 8 개월 아버지)

"일 그 자체에 대해 충실해지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찾게 되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 만큼 노력도 더 많이 하게 되고 .." (29세, 임신 8개월 아버지)

"직업이 선생이다 보니깐 애들하고 있을 시간이 많은데 이제 다 내 자식같고.. 또 내 아이가 크면 학교생활 할 생각을 하니깐 더 많이 신경써게 되더라구요. 내가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우리 아이도 그런 애정 많은 선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칠 생각이다. "(37세, 임신 7개월 아버지)

위의 사례들을 볼 때 남성은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자녀와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자식 사랑이 주변에 대한 애정으로 확대되어 직업인으로 더욱 성실해진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는 예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남성으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정체감을 더욱 확립해 주는 계기가 되고 좀더 성실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태아기 자녀를 둔 예비 아버지들은 여러 가지 부성경험을 하게 된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됨에 따라 이제 아버지가 된다고 스스로 인식해 가면서 아내와 태아를 위해 구체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태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 인식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고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겨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정체감이 더욱 확립되어 사회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

예비 아버지들의 이러한 부성경험의 내용은 남성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자연스런 변화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예비 아버지의 부성경험을 표현하자면 "아버지로의 준비기"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예비 아버지의 부성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탐사질문이 가능한 개별적인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는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예비 아버지들은 아내의 임신기에 스스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었다. 즉, 아내의 임신소식을 접하면 기쁨, 부담감, 책임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반응들은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또한 아버지로 인식해 가는 과정에서 태동을 느껴보거나 태아를 초음파로 보는 체험은 아버지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둘째. 예비 아버지들은 태아를 통해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재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태아나 아내를 위하거나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술과 담배를 삼가는 등 생활에 절제력을 보인다. 이것은 태교가 어머니의 전유물만은 아니고 아버지도 나름대로 태교에 동참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예비 아버지들은 아내의 임신을 통해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을 보인다. 즉, 남성은 아내의 임신을 통해 스스로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고 과거와 현재에 처해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평가해 보고,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아버지의 입장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통해 아버지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예비 아버지들은 아내의 임신을 통해 아내와의 관계가 변화됨을 보인다. 즉, 예비 아버지는 이제 아내를 여자라기 보다 자신의 아이를 낳아 줄 어머니로서 받아들이며 아내에 대한 애정이 증가하며 아내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이 강해짐을 보였다.

다섯째, 예비 아버지는 아내의 임신을 통해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됨을 보인다. 즉, 가정과 가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스스로도 이제 성인이 된 것으로 느끼고 주변에서도 어른대접을 해 주어 본격적인 성인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끼게 된다.

여섯째, 예비 아버지들은 아내의 임신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정체감이 변화됨을 보인다. 즉, 남성은 태어날 자녀와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생명에 대한 애정이 확대되어 직업인으로서 더욱 성실해진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는 예비 아버지를 좀더 성실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위의 여섯가지 예비 아버지들의 부성경험의 내용은 남성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자연스런 변화라고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성을 경험하는 예비 아버지의 시기는 "아버지로의 준비기"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인터뷰법에 의한 연구방법의 한계점으로서 C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사례연구들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거나 과장함으로써'(허미화, 1997 재인용) 해석상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며,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면 첫째,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의 경우를 구분하여 예비 아버지의 부성경험을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태아기 이후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성경험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강남미 (1996). 부성전환스트레스에 관한 이론적 모형. 서울대 박사학위청구논문.

김기현 (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김미란 (1985).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요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옥엽 (1982).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희 (1997). 아버지 역할 지각 및 자녀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희숙 (1996). 두 자녀 아버지의 심리적 경험과 역할수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

김희주 (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노영주 (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경임 (1985). 태교에 대한 부친의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24호*, 215-247.

서혜영 (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손승아 (2000). 첫 어머니됨의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손인아 (1983). 임신과 출산시 아버지 - 남편으로서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위영희 (1978). 아동양육에서의 아버지역할과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정영숙 · 이희자 (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대한가정학회지 18*(2), 23-28.

조선화 (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허선자 (1992). 아버지의 역할 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황정해 (1993).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Ellen G. 저. 김세희 외 4인 역 (1996).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 부모기의 6단계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Merriam S. 저. 허미화 역(1997).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 양서원.

Spradley J. 저. 이희봉 역 (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년 06월 30일 투고: 2004년 8월 09일 채택